

BizDragon

September 2011

Emerging Market Daily*

미국의 경제위기가 아르헨티나에 미치는 영향

September 30, 2011

미국의 경제위기가 아르헨티나에 미치는 영향

오동희 (BizDragon 대표이사)¹⁾

아르헨티나의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범위는 겨우 8%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 재무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브라질, 두 나라에 의해 새로운 세계경제위기가 도래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1차 산업 품목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아르헨티나는 2001년의 디폴트 사태 이후 채권자들이 앞다퉈 자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미 몇 년 전에 그러한 해외투자를 포기했다. 때문에 일간지 LA NACION의 공식보도에 따르면 해외 주식변동보다는 유럽의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 시장의 변화가 예측된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연구소(FIEL)의 Daniel Artana는 “2009년도 세계경제위기 때 아르헨티나의 국내총생산은 3% 하락하였고 이 영향은 바로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그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라틴아메리카든, 보다 더 경제가 튼튼한 국가든 마찬가지이다.”라고 주장했다.

윈스턴 처칠은 최악의 논쟁은 둘 다 착각하고 있지만 둘 다 일리가 있는 두 집단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바로 현재 미국의 경제 위기와 아르헨티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합의가 성사되는 등 미국에 대한 많은 원조가 이루어졌지만 언젠가 모리스 웨스트가 말했듯이 모든 승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지난 8월 발표된 미국의 2/3분기 성장률은 연간 1.3%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1) BizDragon 대표자 오동희는 아르헨티나의 통신사인 Global Crossing Latin America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Universidad Palermo 대학과 UADE 대학에서 마케팅 교수를 역임하였음. 현재 중소기업청의 해외민간네트워크(아르헨티나)과 INKE(글로벌벤처네트워크) 부에노스아이레스 의장을 맡고 있음.

현 미국의 경제 상황은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국내총생산의 95% 이상에 버금가는 부채, 두 번째는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동시장, 세 번째는 특정 제품에 있어서 싼시장에 대한 경쟁력 부족이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상황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경제발전의 한 형태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일은 제외)

영향

미국의 경제 상황은 아르헨티나 기업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영향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평가하기 전에 두 나라 간의 무역관계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아르헨티나의 대 미국 수출은 전체에서 10%를 차지했고 2010년에는 겨우 5%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중 7%를 차지하는 대 아프리카의 수출과 비교할만한 수치이다.)

2001년도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전체 중 18%를 차지했으며 2010년도에는 11%였다. 2001년에는 아르헨티나의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이었던 미국이 2010년에는 네 번째로 내려갔다. 또한 아르헨티나가 두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였으나(2001년 당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중국과 비교하여 세 배에 달했다.) 세 번째 수입국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하루에 3백억 달러의 대두가 거래되는 곳)을 비롯하여 파크 애버뉴, 월스트리트 등 여러 금융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중재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낮은 미국의 금리와 국제거래 되는 상품에 높은 가격을 부과하도록 만드는 달러의 약세, 1차 산업 품목의 가격을 올리는 2천 5백억 달러 이상의 투기성 투자 등은 현재 국제거래상의 작용 조건이 되고 있다. (에탄올을 생산하는 옥수수 가격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격 부담이 없다.)

앞으로의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회복과 경기침체 등 여러 형태의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성과 확실성 확보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국제거래가 더욱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Lester Thurow가 5년 전에 말했듯이 커다란 변화는 균형이 깨지는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간에 José Carlos Jarrillo(스위스 IMD 경영대학원, 바르셀로나 IESE 경영대학원)가 자신의 책에 기술한 것처럼 기회란 철저하게 새로운 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 성장한 시장에서도 게임의 규칙이 바뀔 때 나타날 수 있다.

< 참고자료 >

La Nacion (www.lanacion.com)